

11 Designers with CASA Living

디자인을 바라보는 11개의 시선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홈-테이블 데코 페어'에서 특별 기획전 <11 Designers with CASA Living>이 열린다. 올해 **해(가사리빙)**이 주목한 국내 디자이너가 한자리에 모여 디자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트렌드를 제안하는 유쾌한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 참가하는 디자이너와 그들의 디자인에 대해 소개한다. 에디터 이세미 포토그래퍼 왕태균

4인4색의 유쾌한 디자인 스토리 모노컴플렉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금속공예과 출신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모노컴플렉스는 '퍼피' '소파나' '몽키 테일' 스톨처럼 어린이의 눈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4인의 디자이너는 저마다 다른 개성으로 따로 또 같이 작업함으로써 특색 있는 조명과 가구, 소품을 선보인다. 디자인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공모전과 페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대표작 몽키 테일(Monkey Tail) 스톨, 신(Scene) #01 조명, 인비저블(Invisible) 체어, 캐터스(Cactus) 소파



(왼쪽부터) 모노컴플렉스 김태민·왕은상·박현우·조정원

조선목가구에서얼은 아이디어 단앤답 스튜디오

디자이너 박종호, 박준범은 대중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디자인과 가격대의 가구를 모토로 작업하는 단앤답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그들은 조선 시대 목가구를 모티브로 쉽고 직관적인 디자인과 밝고 화사한 컬러를 지닌 한국적 분위기의 감성 가구를 제작한다. 책을 보던 책상인 서안을 응용한 '서' 데스크와 한국 전통 장의 비례를 따른 '론' 테이블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작 서(Seo) 데스크, 론(Ron) 테이블, 담(Dam) 셀프



(왼쪽부터) 단앤답스튜디오 박준범·박종호, 김희원, swbk 송봉규·이석우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 김희원

창과 문을 통해 소통하는 김희원 작가는 사물의 미적 아름다움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집중한다.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제품 및 가구 디자인, 사진, 영상, 공간 작업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아틀리에 멘디니 디자인팀에서 근무했고 파리에 독립 스튜디오를 차렸으며, 현재 사진과 영상을 디자인에 접목하는 작업과 전시 디렉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작 경복궁·창덕궁 시리즈, 쫓불 영상, 로이드 호텔 프로젝트

디자인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제안 swbk

인도네시아의 오래된 집과 선박에 썼던 고재로 '매터 앤매터'라는 업사이클 가구 브랜드를 만든 이석우, 송봉규 디자이너. 산업디자인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프로젝트와 디자인 컨설팅을 담당하는 이들은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 오브제, 더 나아가 게스트 하우스나 다이닝 공간 등 인테리어까지 아울러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대표작 레그(Leg) 체어, 트로피컬 버드(Tropical Bird)

